

SKT, '월드 IT쇼 2021' 참가

AI·가상현실로 이뤄질 미래 세상을 만나다

**- SKT, 21~23일 서울 코엑스서 AI와 메타버스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 선봬**

**· 자체 개발 AI 반도체부터 인공지능 기술 적용된 생활 서비스까지 볼거리 풍성**

**· 메타버스 체험도 주목… 초현실적 경험 제공하는 ‘5G 메타버스 시네마’ 눈길**

**- 코로나 고려 방역과 안전에 만전…체험은 줄 설 필요 없이 모바일로 예약 가능**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2021. 04. 21]**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이 21일~23일 열리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1(WIS 2021)'에서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SKT는 서울 코엑스(COEX) 3층에 위치한 870㎡ 규모의 전시관에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로 가득찬 미래'를 주제로 대한민국 ICT 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기술 총 12개를 전시한다.

SKT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의 핵심 두뇌 AI 반도체 'SAPEON(사피온)'과 함께 코로나 방역을 돕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NUGU)'가 탑재된 이어셋 ‘누구 버즈’와 인공지능 전기차 등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인다.

AI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핵심 두뇌에 해당한다.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시행한다. SKT는 작년 12월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에 적용 가능한 AI 반도체 '사피온'을 자체 개발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WIS에서는 관람객들이 '사피온'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 관람객들은 대형 구조물 형태로 제작된 '사피온'을 통해 칩셋의 형태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으며, 글로벌 톱 수준의 반도체 회사가 개발한 GPU(그래픽처리장치)와 데이터 처리 속도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등 SKT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KT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생활 속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관람객은 인공지능 방역 로봇 'Keemi(키미)'가 전시관 곳곳을 자율주행 기술로 돌아다니며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것을 관람할 수 있으며, SKT의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NUGU)'가 탑재된 이어셋 '누구 버즈'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국내외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미래 서비스도 SKT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미래 ICT 기술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SKT는 ▲초현실적 경험을 제공하는 ‘5G 메타버스 시네마’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점프스튜디오’ ▲차세대 5G 기술인 모바일엣지컴퓨팅이 적용된 메타버스 패션쇼, 트윈 월드(메타버스 컨퍼런스)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는 VR기기 오큘러스 퀘스트2를 선보인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전시물은 ‘5G 메타버스 시네마’다. 관람객은 상하좌우 360도로 자유롭게 회전하는 거대 로봇팔에 앉아 VR 기기를 착용하기만 하면 수백 년 후 미래에서 펼쳐질 법한 로봇 전쟁 현장이나 수백 미터 아래 바다 속을 탐험하는 듯한 초현실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SKT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 기존에는 VR 기기를 써야 체험이 가능했던 ‘메타버스’ 서비스를 VR 기기 착용 없이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특수 디스플레이(시크릿 스크린)를 전시장 곳곳에 설치했다. 평상시에는 화면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지만 관람객이 스크린 앞에 서면 실제 VR 기기를 착용한 것과 같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또한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시간대별로 방역도 철저히 실시하며, 체험 기구나 이벤트는 따로 줄을 서지 않아도 모바일 예약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 후 기다리면 체험이 가능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SKT 송광현 디지털커뮤니케이션실장은 “관람객들이 AI와 메타버스로 가득한 미래 세상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미래를 선도하는 ICT 혁신 기술을 통해 고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  사진설명 공통 : SK텔레콤이 21일~23일 열리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1(WIS 2021)'에서 AI(인공지능)와 메타버스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진설명1: SKT 홍보 모델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로 가득찬 미래'를 주제로 준비한 WIS 2021 SKT 전시 부스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설명2: SKT 홍보 모델이 AI 반도체 사피온의 데이터 처리 속도 우수성 시연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진설명3: SKT 홍보 모델이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2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

**▶ 관련 문의 : SK텔레콤 PR실 윤태구 매니저 (02-6100-3816)**

**<끝>**